



CBS가 만든  성경 채널
알림바이블 대본집

Ep.078

위험에 처한 에스더 왕비

(에스더 1:1~4:11)

**‘아하수어로’는 페르시아 제국의 새로운 왕이었어요.
세계를 호령하던 거대한 제국 ‘페르시아’!**

**지금으로 치면 중동지역을 정복한 나라였고
인도와 아프리카 대륙까지도 세력을 넓혔던
그야말로 가장 강한 나라였죠.
페르시아의 아하수어로 왕은 새 왕비를 찾고 있었어요.**

**“왕의 명령이요! 전국의 가장 아름다운 여인들을
불러 모아 그중에서 새 왕비를 뽑을 것이니
다들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라요!”**

왕실에서 일하는 ‘모르드개’도 그 소식을 들었어요.
모르드개는 옛날 남유다 사람들이 바빌로니아에
포로로 끌려왔을 때 함께 왔던 유대인이었죠.

‘모르드개’에게는 ‘에스더’라는 사촌 동생이 있었는데
‘에스더’는 어렸을 때 부모님을 잃었기 때문에
사촌오빠인 모르드개가 에스더를 딸처럼 보살펴 주었죠.
에스더는, 누가 보아도 감탄할 만큼
정말 아름다운 여인이었어요.

그야 당연히 에스더도 왕비 후보 중 한 명으로 뽑혔는데
에스더가 왕궁에 들어가기 전날
모르드개는 에스더에게 신신당부를 했어요.

“에스더, 잘 들어라. 왕궁에 있는 동안
우리 둘이 친척 사이라는 사실과, 네가 유대인이라는
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거라. 알겠니?”

궁궐에 모인 여인들은, 1년 동안 왕비가 되기 위한
준비를 했어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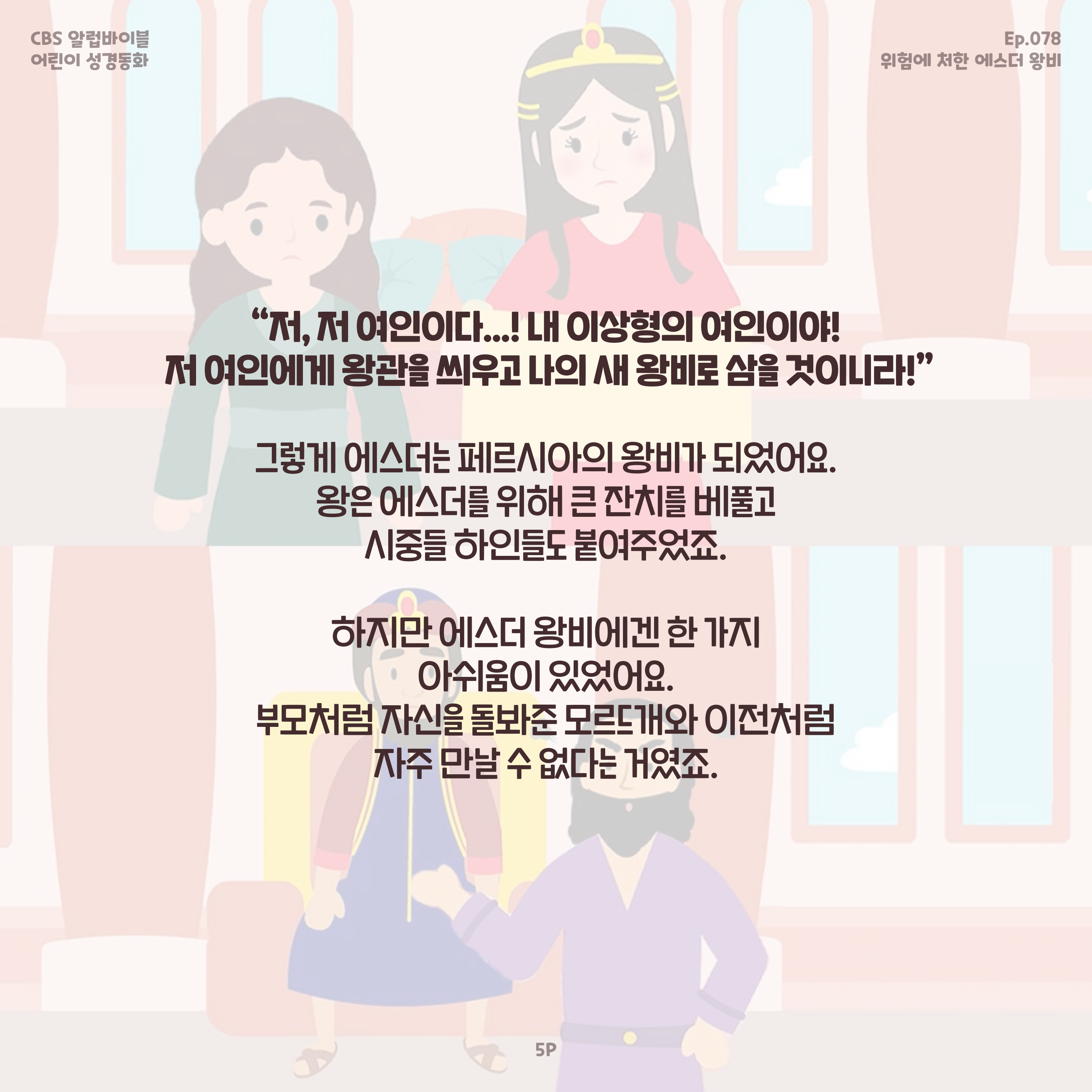
외모를 아름답게 가꾸고 필요한 예절을 배워뒀다가
한 사람씩 왕 앞에 나아갔죠.
마침내, 에스더의 차례가 되었어요!

“폐하, 새로운 여인을 보실 차례이옵니다.”

**문이 열리고, 한 걸음 한 걸음 방으로 들어오는 에스더는
정말 아름다웠어요!**

**화려한 장식으로 치장했던 이전의 여인들과는 달리
에스더는 소박한 차림으로 들어왔지만
누가 보아도 아름답기가 그지없었죠.**


아하수어로 왕도 에스더에게 첫눈에 반하고 말았어요.



**“저, 저 여인이다...! 내 이상형의 여인이야!
저 여인에게 왕관을 씌우고 나의 새 왕비로 삼을 것이니라!”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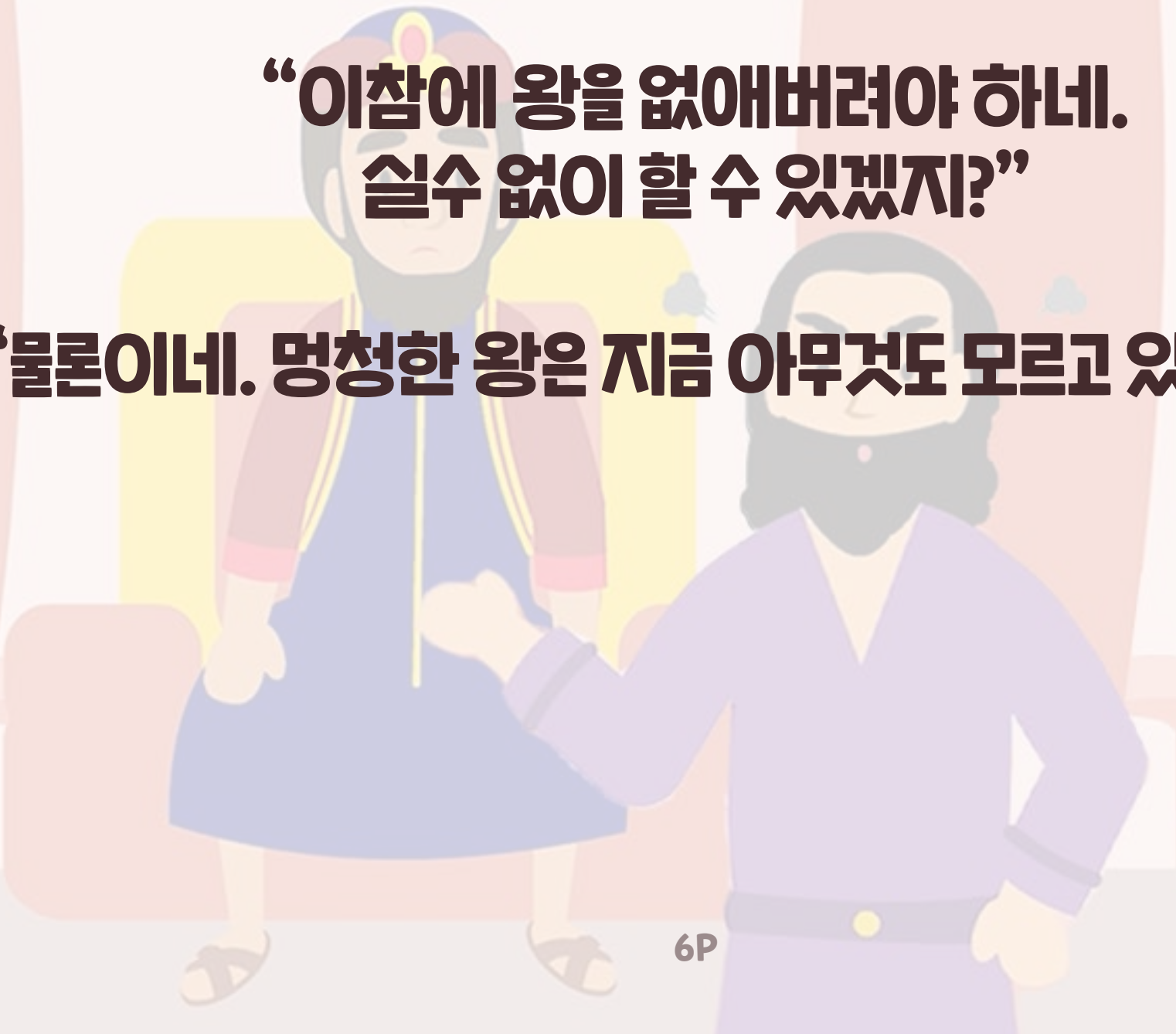
그렇게 에스더는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었어요.
왕은 에스더를 위해 큰 잔치를 베풀고
시종들 하인들도 붙여주었죠.

하지만 에스더 왕비에겐 한 가지
아쉬움이 있었어요.
부모처럼 자신을 돌봐준 모르드개와 이전처럼
자주 만날 수 없다는 거였죠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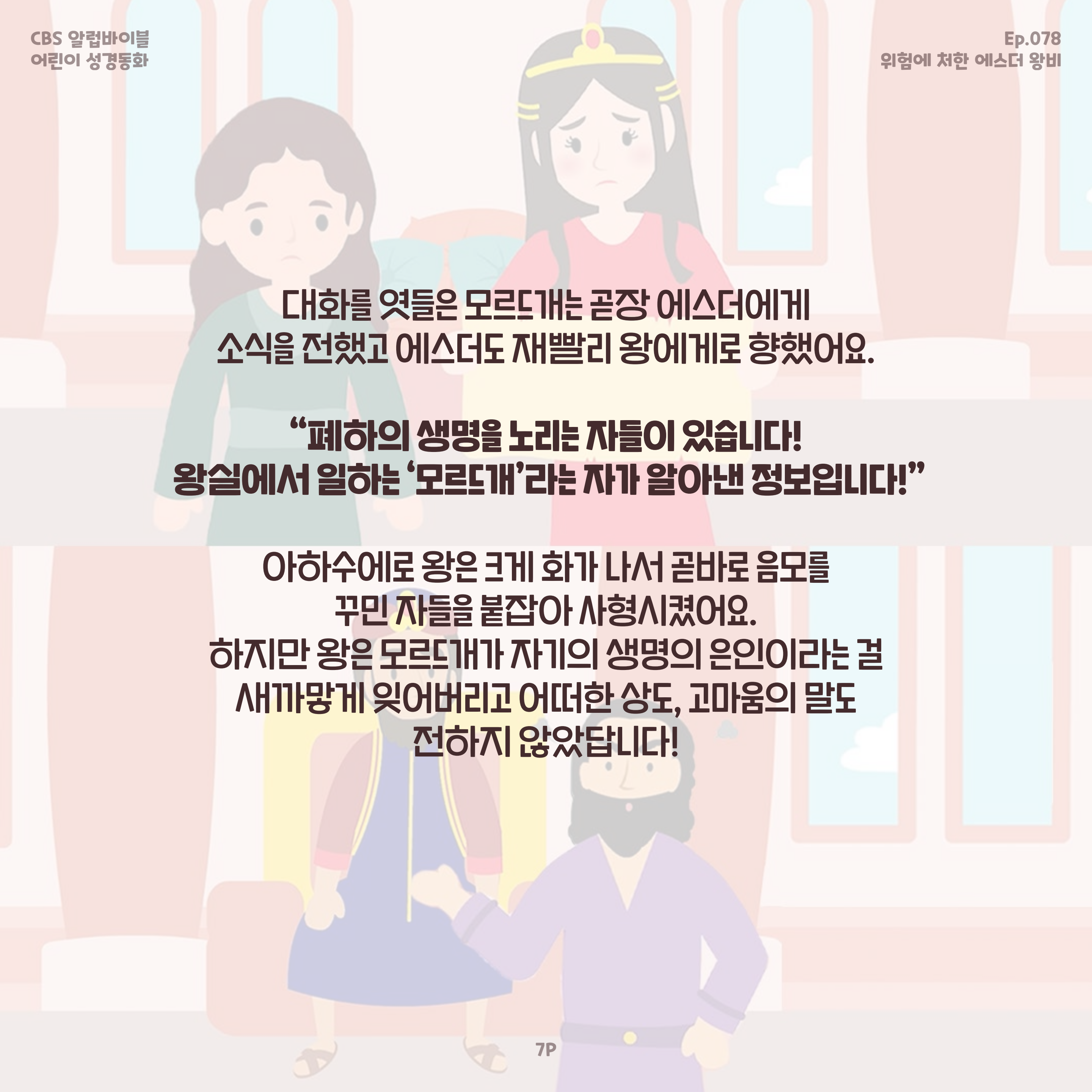
대신 모르드개는 날마다 에스더 방의 창문 곁을
거닐곤 했고 에스더는 하인들을 통해
모르드개에게 편지를 전달할 수 있었어요.

그러던 어느 날, 모르드개가 왕궁 문 앞에 앉아 있는데
두 사람이 귓속말로 대화하는 게 들렸어요.



“이참에 왕을 없애버려야 하네.
실수 없이 할 수 있겠지?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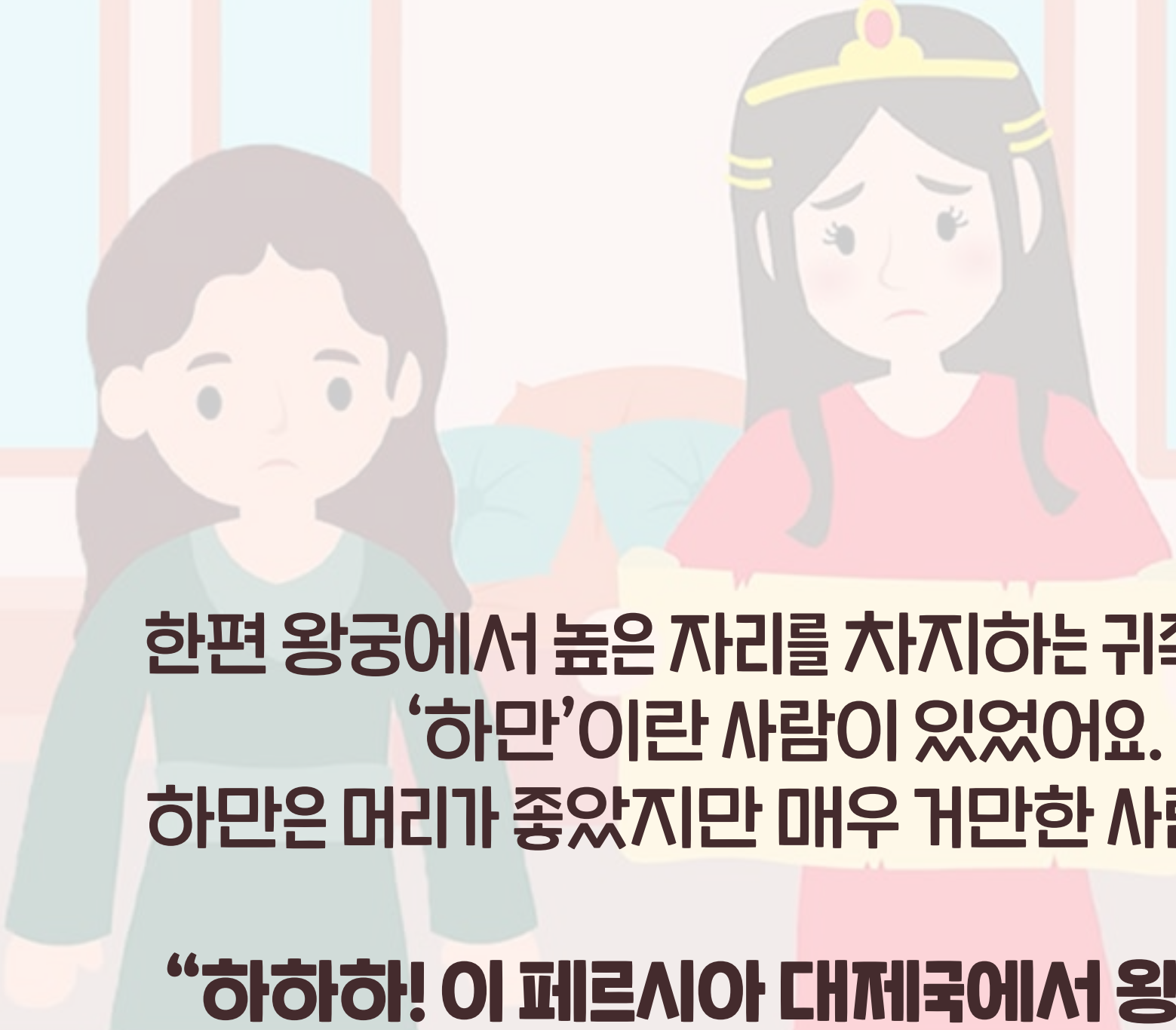
“물론이네. 멍청한 왕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걸세.”

The background illustration shows two women in a room with large windows. The woman on the left has long dark hair and wears a green long-sleeved top and a dark skirt. The woman on the right has long dark hair with a yellow headband and wears a pink long-sleeved top and a yellow skirt. Both have sad expressions.


대화를 엿들은 모르드개는 곧장 에스더에게 소식을 전했고 에스더도 재빨리 왕에게로 향했어요.

**“폐하의 생명을 노리는 자들이 있습니다!
왕실에서 일하는 ‘모르드개’라는 자가 알아낸 정보입니다!”**

아하수어로 왕은 크게 화가 나서 곧바로 음모를 꾸민 자들을 붙잡아 사형시켰어요.
하지만 왕은 모르드개가 자기의 생명의 은인이라는 걸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어떠한 상도, 고마움의 말도 전하지 않았답니다!



한편 왕궁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귀족들 가운데
‘하만’이란 사람이 있었어요.
하만은 머리가 좋았지만 매우 거만한 사람이었죠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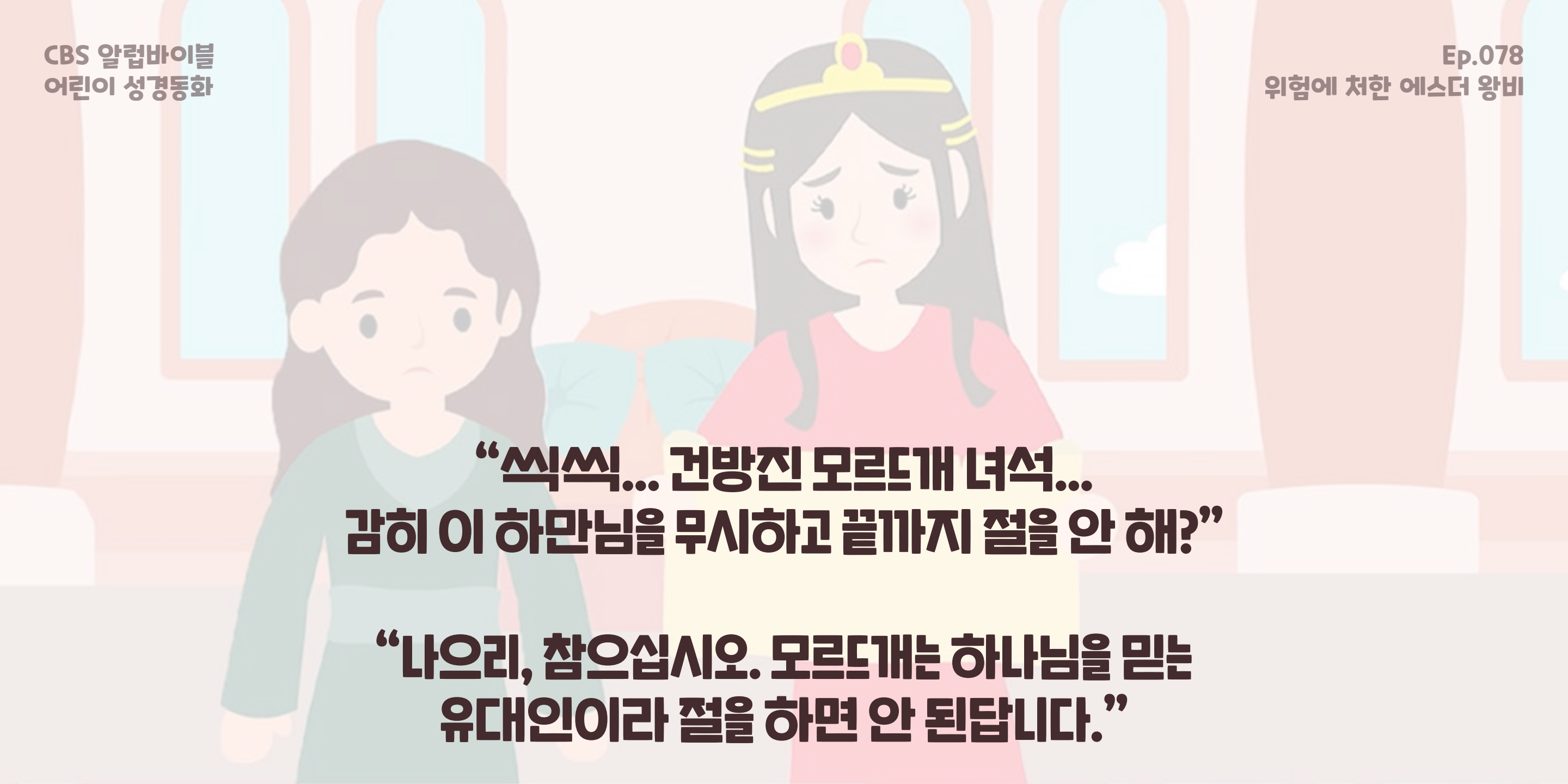
“하하하! 이 페르시아 대제국에서 왕 다음으로
높은 사람이 바로 나 ‘하만’이다.
아니, 솔직히 말해서 나의 이 화려한 언변과
천재적인 머리만 있으면 왕을 구워삶아 내 멋대로 하는 것도
식은 죽 먹기란 말이지! 하하하!”



그건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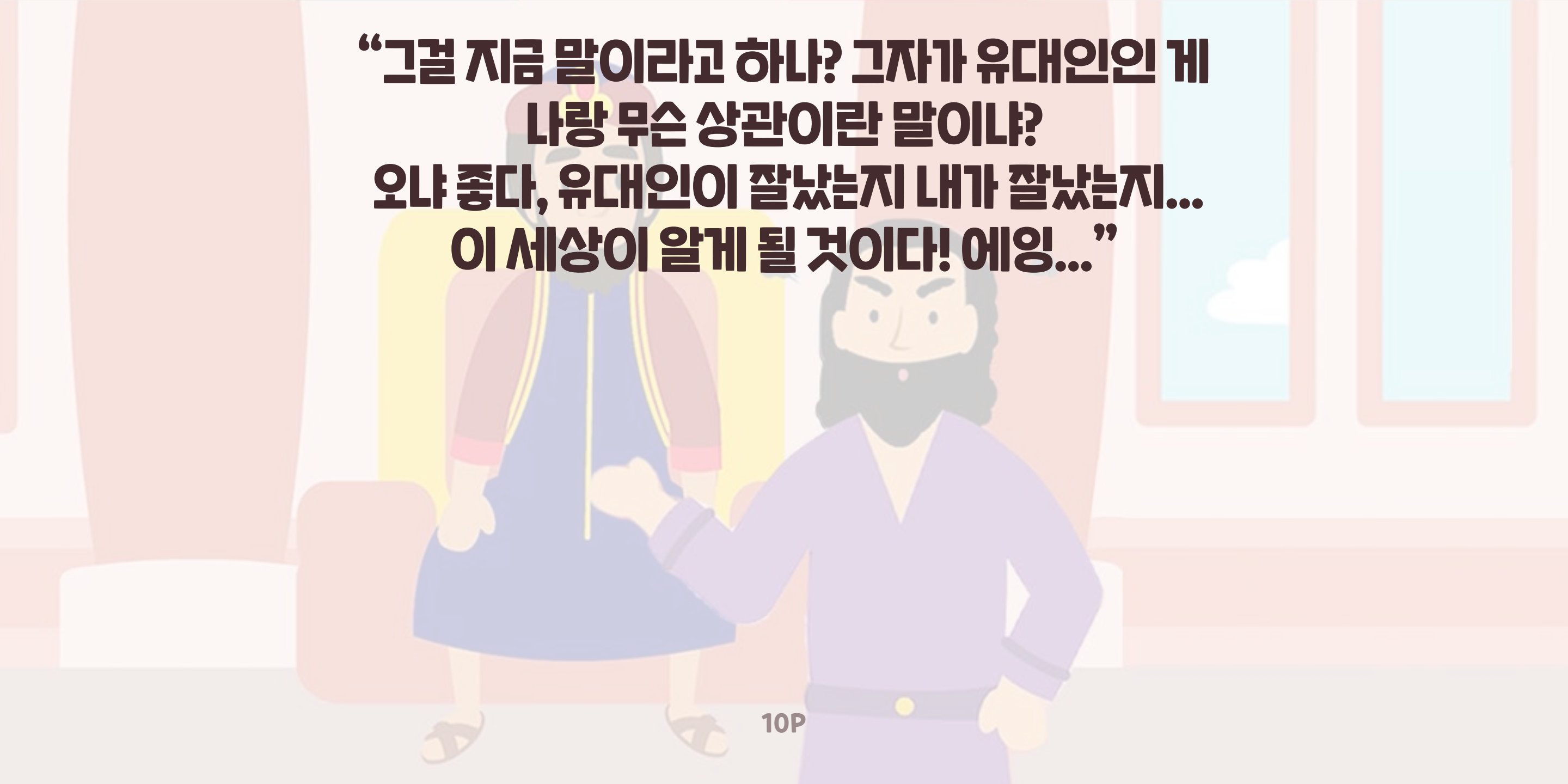
왕의 명령에 따라. 모든 신하들은 하만 앞에서
공손히 절을 해야만 했죠.

그러나 단 한 사람, 모르드개 만큼은
하만에게 절대로 절을 하지 않았어요!
하나님만을 섬기는 모르드개에게
사람 앞에서 절하는 행동은, 큰 죄였으니까요.



**“씩씩... 건방진 모르드개 녀석...
감히 이 하만님을 무시하고 끝까지 절을 안 해?”**

**“나으리, 참으십시오. 모르드개는 하나님을 믿는
유대인이라 절을 하면 안 됩니다.”**



**“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나? 그자가 유대인인 게
나랑 무슨 상관이란 말이나?
오냐 좋다, 유대인이 잘났는지 내가 잘났는지...
이 세상이 알게 될 것이다! 에잉...”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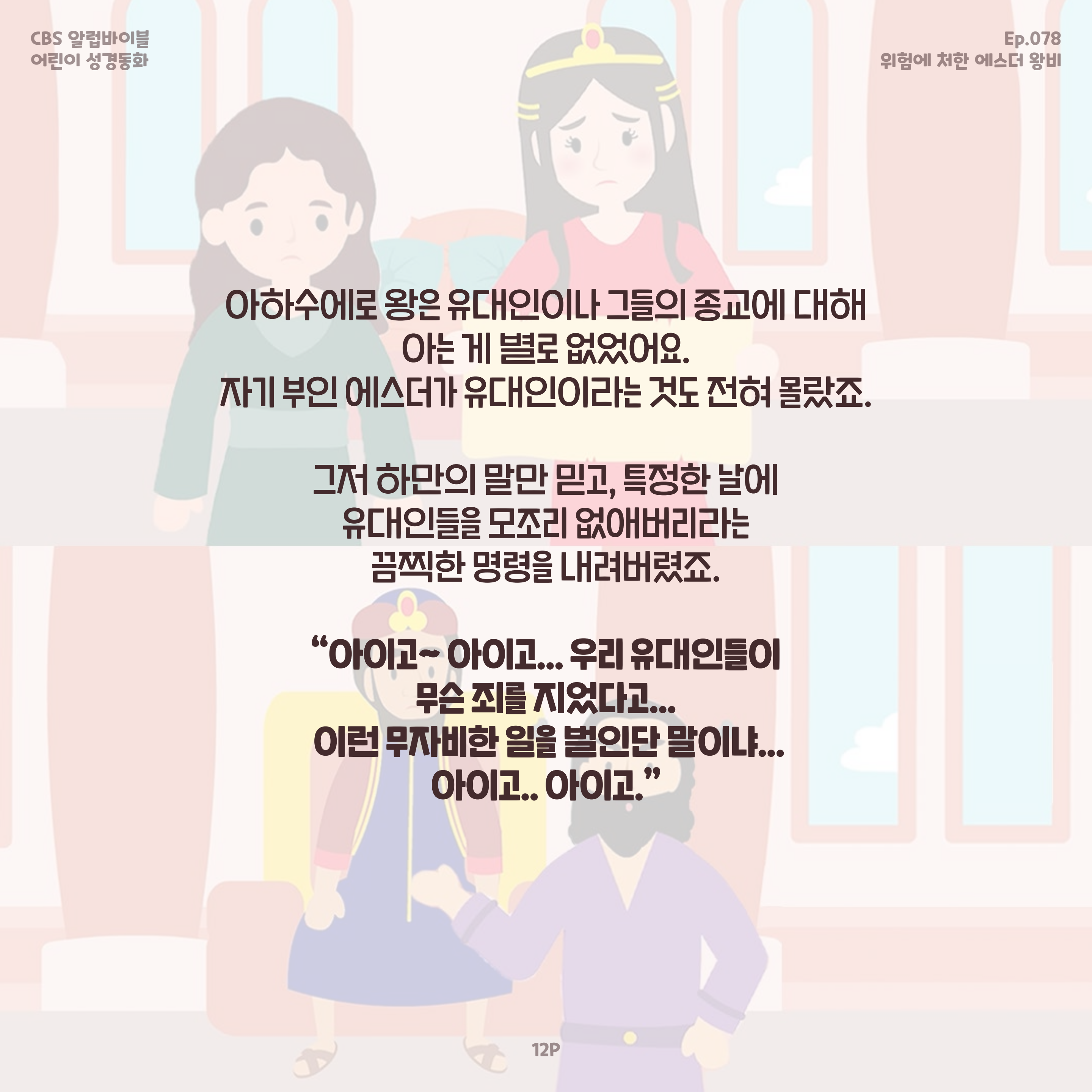
하만은 아하수어로 왕을 찾아갔어요.

“아니, 하만이 아닌가?
여기까지 오다니, 무슨 일이 있는가?”

“폐하. 지금 페하의 나라에서 얼토당토않은 일이
벌어지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?

대 페르시아 제국의 수많은 민족들 중에
유독 페하의 법과 명령을 귓등으로도
듣지 않는 민족이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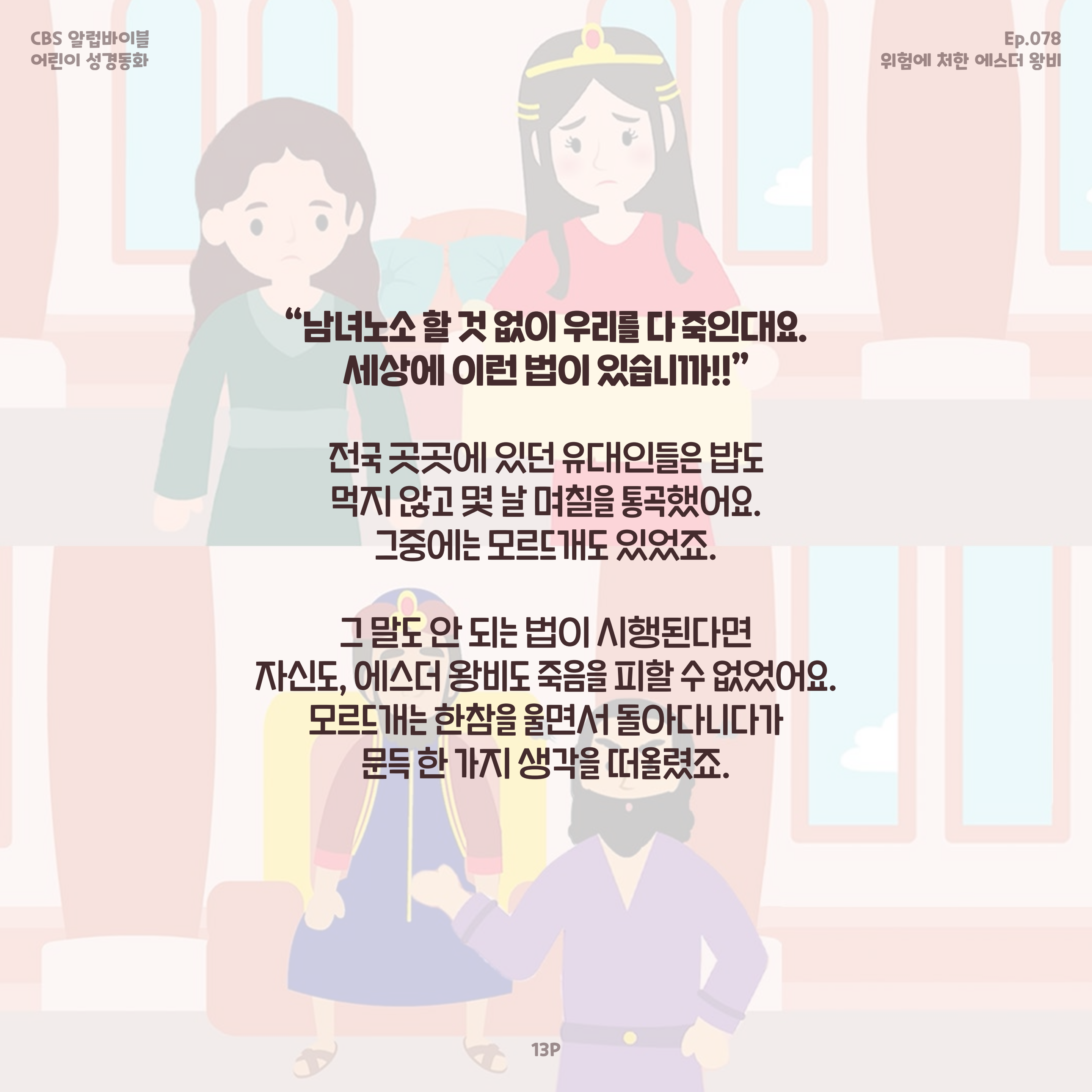
바로 ‘유대 민족’이지요! 페하의 권위를 위해서라도
유대인들을 싸그리 없앨 수 있게 명령을 내려주십시오!”



아하수어로 왕은 유대인이나 그들의 종교에 대해
아는 게 별로 없었어요.
자기 부인 에스더가 유대인이라는 것도 전혀 몰랐죠.

그저 하만의 말만 믿고, 특정한 날에
유대인들을 모조리 없애버리라는
끔찍한 명령을 내려버렸죠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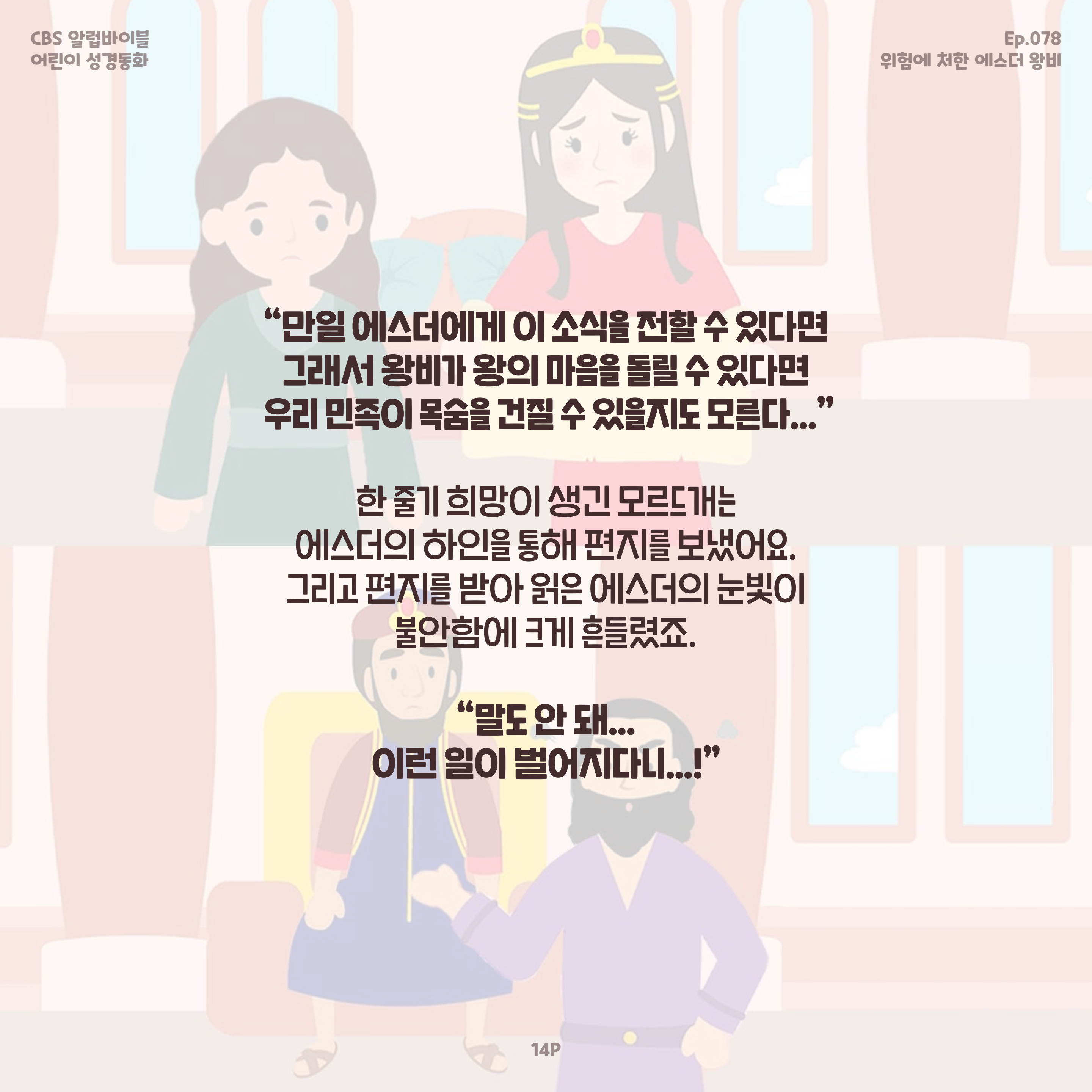
“아이고~ 아이고... 우리 유대인들이
무슨 죄를 지었다고...
이런 무자비한 일을 벌인단 말이냐...
아이고.. 아이고.”



**“남녀노소 할 것 없이 우리를 다 죽인대요.
세상에 이런 법이 있습니까!!”**

**전국 곳곳에 있던 유대인들은 밥도
먹지 않고 몇 날 며칠을 통곡했어요.
그중에는 모르드개도 있었죠.**

**그 말도 안 되는 법이 시행된다면
자신도, 에스더 왕비도 죽음을 피할 수 없었어요.
모르드개는 한참을 울면서 돌아다니다가
문득 한 가지 생각을 떠올렸죠.**



**“만일 에스더에게 이 소식을 전할 수 있다면
그래서 왕비가 왕의 마음을 돌릴 수 있다면
우리 민족이 목숨을 건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...”**

**한 줄기 희망이 생긴 모르드개는
에스더의 하인을 통해 편지를 보냈어요.
그리고 편지를 받아 읽은 에스더의 눈빛이
불안함에 크게 흔들렸죠.**

**“말도 안 돼...
이런 일이 벌어지다니...!”**

에스더는 모르드개의 요청대로 당장 왕에게 달려가
말리고 싶었지만 커다란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.

당시 왕궁의 법에 따라 왕비는 왕이 먼저 부르지 않으면
왕을 찾아갈 수 없었던 거죠.
그리고 이 법을 어기는 사람은 누구든지 목숨을 잃게 돼 있었어요.

유대인들을 위해 나서자니 본인의 목숨이 위험하고.
나서지 않으면.
같은 민족 사람들이 죽게 되는 상황

과연 에스더 왕비는,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?